

제9대 총장 공모에 5명 교수 지원

오는 13일 최종 후보 2인 선정해 교육부 통보



고영철 교수 김두철 교수 김중훈 교수 양영철 교수 허향진 교수

오는 13일 치러질 제주대학교 제9대 총장선거에 모두 5명의 교수가 공모지원했다.

지원자(가나다순)는 △고영철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학과 교수 △김두철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김중훈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양영철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허향진 관광경영학과 교수 등이다.

공모위원회는 신청자들의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지난 4일 서류 보정기간을 거쳤고, 입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자료 공개열람은 6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진다.

오는 12일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 구성을 위한 투표와 추천이 이뤄지며 13일 오전 9시부터 추천위 선정을 위한 개표가 이뤄진다.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수는 학내 36명, 학외 12명 등 48명이다. 학내는 교원 31명(여성 4명), 직원 4명(여성 1명), 학생 1명이다. 학외는 평의회 추천 5명(여성 2명), 공무원직장협의회·총동창회·기성회이사회 추천 각 2명(여성 1명), 총학생회 추천 1명이다.

추천위 구성이 완료되면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후 오후 5시

제 표결을 통해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한다.

추천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로 선정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3명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3차 결선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1, 2위로 선정된 2명을 교육부에 통보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차기 총장을 임명한다.

각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으며, 선거일 전날인 12일 자정까지 유무선 전화와 홈페이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모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홍보물 배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 연구실 방문은 금지된다.

총장 공모지원자 홈페이지

△고영철 언론홍보학과 교수
△김두철 물리학과 교수
△김중훈 영어교육과 교수
△양영철 행정학과 교수
△허향진 관광경영학과 교수

blog.naver.com/53ycko
www.김두철.kr
www.dynamichoon.co.kr
blog.naver.com/yycdragon
hjj.jejunu.ac.kr

4인 지원자 “허향진 사퇴” 촉구에 추관위 ‘경고’ 조치

회견내용 ‘규정위반’ 판단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치환 이하 추관위)는 제9대 총장공모지원자 등록한 고영철, 김두철, 김중훈, 양영철 교수 등에 대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추관위는 지난 31일 총장공모지원자 4명의 기자회견 내용은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및 동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홍보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규정 제13조 1항 제3호(타인이 총장임용후보자가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하는 등의 행위)와 제4호(허위 사실 유포 및 상대 후보를 비방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관위는 지난달 10일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공모 공고 및 접수 개시일 이전에 공모지원자격 등을 포함한 선정 규정(제4조, 제5조, 제19조 제6호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정하고, 위 공고에 따라 공모접수가 완료되고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공모지원자격과 규정을 부정하는 행위는 규정 제13조 1항 7호(기타 공정한 선정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영철, 김두철, 김중훈, 양영철 총장공모지원자는 지난달 31일 교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향진 총장이 ‘학무위원 또는 평의

회 의장이 총장후보자에 응모하는 경우 총장공모지원자 접수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총장공모 공고를 어겼고 본인이 도입한 간선제에 후보로 나서서 총장연임을 하려는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향진 총장공모지원자는 4일 ‘생산적인 정책토론을 기대합니다’라는 제하의 게시글을 통해 “교직원 78%의 투표와 68%의 찬성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결단이며, 이런 중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돼야지 폄하해서는 안 되는 만큼 총장공모지원자로서 규정에 따라 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하여 그 자격을 검증받겠다”고 밝혔다.



학생회 선거운동 열기가 뜨거워 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총학생회에 입후보한 <하영Dream·사진 왼쪽>과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아라캠퍼스 정문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학생자치기구 정책토론회는 △총학생회·5일 오후 1시 △총학생회 2차 정책토론회·13일 한라터 시간 미정 △총대의원회 정책토론회·6일 오후 2시 △총여학생회 정책토론회·7일 오후 1시 △동아리연합회·7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린다. 토론회는 총학생회 2차 정책토론회를 제외하고 모두 사회과학대학 강당에서 열린다.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19일 실시

경상대·자연대는 경선

간호대·교육대는 이달말 등록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 주관으로 오는 19일 각 단과대학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경상대학교와 자연과학대학은 두 팀이 등록해 경선을 치른다. 경상대학은 ‘내일보다’ (정·임찬호 경제학과 3, 부·김우용 회계학과 2)와 ‘경쾌한’ (정·김형승 경영학과 3, 부·고석호 관광경영 2)이 입후보했다.

자연과학대학은 ‘공유하기’ (정·한권담 전산통계학과 3, 부·장은재 화학과 3)와 ‘합성소리’ (정·고성필 물리학과 3, 부·고예은 전산통계학

과 3)가 출마했다.

경상대학교와 자연과학대학을 제외한 8개 단과대학은 단선 입후보했다. 등록 결과 △인문대학= ‘인able’ 정·장상우 (국어국문학과 2), 부·한정훈 (사학과 3) △사회과학대학= ‘청사진’ 정·김대성 (언론홍보학과 3), 부·김성은 (행정학과 3) △사범대학= ‘사대공감’ 정·안세현 (사회교육과 3), 부·김남규 (윤리교육과 2) △생명자원과학대학= ‘유엔위’ 정·김진철 (분자생명공학전공 3), 부·조상만 (원예환경전공 2) △해양과학대학= ‘위해드림’ 정·강민우 (환경공학과 3), 부·정성우 (지구해양과학 2) △공과대학= ‘역시’ 정·김영천 (전기공학과 3), 부·현승탁 (전자공학과 3) △수의과대학= ‘비트윈’ 정·문태성

(수의학과 1), 부·장성환(수의학과 1) △예술디자인대학= ‘예술인디’ 정·문진현 (미술학과 2), 부·강민선 (미술학과 2)이다.

간호대학은 아직 후보자가 없어 오는 30일까지 재등록을 받아 내달 선거를 치른다. 또한 교육대학도 오는 2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강수빈 기자

동아리연합회 14일 선거

한편 동아리연합회 선거에 ‘당신의’ (정·고두현, 생활환경복지학부 3, 부·김현두, 생명화학공학과 3)가 단독 출마했다. 오는 14일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에서 투표함을 마련해 찬반 투표를 치른다.

멸종위기 뽕부기 제주서 첫 발견

야생동물구조센터,
뽕부기 구조해 치료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최근 부상당한 뽕부기(사진) 한마리를 구조했다.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센터장 윤영민)가 부상당한 뽕부기 한 마리를 구조했다. 뽕부기가 제주에서 실제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조된 뽕부기는 암컷으로 황갈색 일록무늬에 몸길이는 약 33cm 정도, 구조당시 다리 골절 및 근육 손상이 심했으나 수술경과가 좋아 걸어 다닐 정도로 점차 회복단계에 있다.

뽕부기는 1970년 이후 개체수가 계속 감소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멸종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컷은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 및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46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 2004년 여름 제주시 한경면 습지에서 수컷 울음소리가 확인된 기록은 있지만 제주에서 실제로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

단과대학 순회 교양교육 발전토론회 개최

“교양교육 질적 개선 위해”... 내년 2월까지 마무리

교양교육과정 발전 토론회가 기초교육원(원장 현승환) 주최로 단과대학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인문대학·예술디자인대학 토론회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토론회는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수렴한다.

기초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양교육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토론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 8일 경상대학 2호관 세미나실 △11월 22일 사회과학대학 2123 강의실 △12월 6일 생명자원과학대학·해양과학대학 장소 미정 △12월 13일 사범대학 장소 미정 △12월 20일 교육대학 장소 미정 △12월 27일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국제교류관 세미나실3

에듀케이터 교육 참가자 모집

박물관(관장 김동진)이 ‘글로벌 시대 지역박물관 에듀케이터 전문인력 양성교육’ 참가자를 이달 4일부터 5일간 모집한다.

오는 19일부터 4일간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융복합 문화예술분야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박물관 학예연구실(전화 754-2243)

70억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제주!

제주에 있어 대한민국이 행복해 집니다.
꿈과 낭만, 즐거움이 넘치는 힐링의 섬,
제주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세계환경수도 제주!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사설

글쓰기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대학교의 현행 교과과정상 '글쓰기'는 학문기초교양의 의 사소통 영역에 속한다. 의사소통 영역에는 '고전읽기'와 '글쓰기' (각각 2학점 2시수)가 있고,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이 중에서 한 과목만을 이수하면 된다. 말하자면 '글쓰기'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4학년 2학기에 이수해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대학교에서 '글쓰기'는 별로 중요한 과목이 아닌 셈이다.

다른 대학교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상황은 정말이지 참담할 지경이다. 국립거점대학에서 가장 상층부에 있는 전북대학교와 견주어 보기로 하자.

전북대학교의 '글쓰기'는 1학년 대상의 필수과목이다. 1학년 학생들이 개별적 전공 영역을 공부하기 이전에 모두가 이 교과목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학점도 4학점(2×2)이다. 1학기에는 전 계열에 공통적인 글쓰기를 공부하고, 2학기에는 인문·사회·이공 계열별로 실용적 글쓰기를 공부하도록 되어 있다(계열별로 1년 과정에 맞춘 교재가 개발되었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130여 분반이 개설된다. 30명 단위로 분반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반면에 우리대학교는 학기당 14~20분반(교대 포함) 정도만 개설되며, 분반 인원도 44명이다. 분반 수가 적으니 학생들은 추가접수를 받아달라고 아우성이다. 추가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학생이 교수에게 폭언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계열별 분반은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걸맞게 강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학교는 첨삭을 통한 피드백을 학기당 2회씩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피드백을 위해 첨삭 도우미(대학원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든 1학년 때 글쓰기 수업을 통해 4차례 이상의 첨삭지도를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있다.

우리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첨삭 지도를 해 주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수강학생 수가 많은데다 첨삭 도우미는 물론 없다. 그래서 글쓰기 수강 기간 동안 첨삭 지도를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우리대학교의 학생들은 글쓰기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되고, 수강하더라도 질 높은 수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3,4학년이 되어도 참고문헌이나 주석을 달 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취업을 앞두고 자기소개서 하나 제대로 작성할 줄 모른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우리대학교도 글쓰기가 1학년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 '고전읽기'와 '글쓰기' 중 택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글쓰기'는 필수로 지정하고 '고전읽기'는 균형교양 영역으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수 학점도 4학점(2×2)으로 늘려야 한다. 첨삭 도우미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요즘 기초교육원에서는 교양교육과정 체계화 및 질 관리를 위해 '교양교육발전 토론회 <아~교라!>'를 각 단과대학별로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2015년 정기 개편되는 교양교육과정의 계획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인 것이다. 때마침 제9대 총장공모 지원자로 나선 5인 모두 하나같이 기초교양교육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교양교육 개편이 이뤄지길 바란다. 특히 글쓰기 교육의 혁신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직무대리 신동범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내선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제주어, 민·학·관이 협력해 살려야”

윌리엄 오그레디 교수 ‘... 언어 살리기’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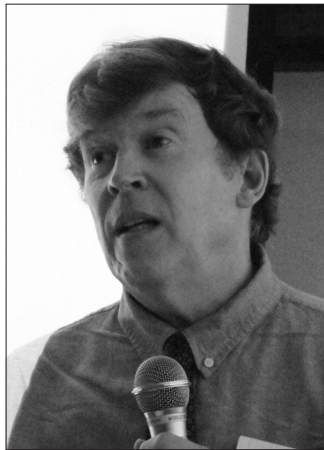
대학연구소·지역사회·시민단체 역할 강조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은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부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윌리엄 오그레디(William O'Grady) 하와이대 교수를 지난달 30일 초청, '사라져가는 언어 살리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은 강연 요지.

▶자매어 관계의 제주어와 한국어
제주어와 한국어는 각각 다른 언어이다. 한국어를 하는 사람도 제주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즉 언어 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볼 때, 제주어는 한국어의 방언이 아니라 한국어의 자매어인 것이다. 제주어는 1~10세기 고대국어에서 한국어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진 자매어로 볼 수 있다. 자매어도 유사한 어휘가 있는가 하면 다른 어휘도 있다.

제주어는 한국어의 유일한 친족어이다. 제주어는 제주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 제주어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제주도의 인구 50만 중 1~2%만이 제주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제주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구의 대다수가 60~70대 이상이다. 유네스코에서는 제주어를 심각한 멸종위기 언어로 선정했다. 이제 제주어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제주도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제주어를 살리기 위한 방법
-이중언어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주어 프로그램의 개발, 인적자료의 개발 등이 중요하다. 제주어 보존을 위



윌리엄 오그레디 교수가 지난달 30일 외국어교육원에서 강연했다.

한 예산은 제주도와 정부, 학술재단, 개인, 국내외기업 등 다양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주어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언어 습득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어도 사용하면서 제주어를 병용하는 이중언어 사회를 말하는 것

이다. 이중언어는 여러 장점이 있다. 이중언어는 뇌기능과 뇌 건강에 이롭다. 또한 인지기능을 촉진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제주어의 과제

제주어의 화자 대다수가 오십대 이상이며, 화자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제주어는 배움 기회가 거의 없다. 제주어를 살리기 위해서는 협력관계가 우선 필요하다. 국내외 제주어 연구의 산실인 제주대학교가 적극 나서서 많은 연구자들이 협력을 통해 제주어를 연구해야 한다.

또한 제주어보전회와 같은 지역사회 및 NGO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언어살리기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는 하와이대학교의 언어학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스미스소니언, 구글과 같은 국제 기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박소연 기자

‘계절학기 수요조사’ 참여 부족으로 도입 취지 무색

수요조사 참여율 겨우 2%

“활성화되면 수요 예측 가능”

계절학기 수요조사가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하영드림비를 통해 진행됐다. 하지만 저조한 참여율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계절학기 수요조사는 매 학기 중간고사 이후 학생들의 선호조사 교과목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학생들의 학문적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계절학기 강의에 반영해 교육수요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학기 계절학기 수요조사 참여율은 1.7%, 동계 계절학기 수요조사 참여

율은 2.5%에 그쳤다. 지난 학기 계절학기 강의수강생이 전체 재학생의 19%인 1891명에 비하면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이 매우 적다.

이에 따라 계절학기 교양강의 경우 지난해 동계 방학에 33개의 강의를 열렸고, 하계 방학에는 31개의 강의가 열렸다.

학생들은 계절학기 수요조사의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 때나 학교에서 수요조사와 관련해 들은 내용이 거의 없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수요조사 참여에 응해도 강의 개설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부성필(인문홍보학과 3)씨는 “계절학기 사전 수요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학과, 학교 차

원에서 수요조사가 열리고 있거나 며칠 전에 문자 등을 통해 알려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사과는 계절학기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강의는 학과에 강의를 개설을 요청하고 있다. 수요조사를 했다고 해서 모든 강좌가 개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

의 의증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세라(학사과) 실무관은 “계절학기 사전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학과에 알리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전 수요조사에 많이 참여해 이 제도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강석희 동문

CJ 총괄부사장에 승진

강석희(57·중식학과 1980년 졸업) 동문이 CJ 총괄부사장에 임명됐다.

CJ 그룹은 1일자로 강석희 CJ(주)경영지원총괄 겸 CJ E&M 대표이사가 CJ그룹 총괄부사장으로 승진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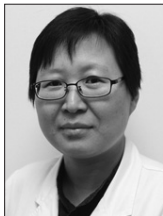
강석희 총괄부사장은 1988년 제일제당에 입사한 이후 CJ 제일제당의 대표 상품인 '컨디션' 마케팅과 영업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강석희 신임 총괄부사장은 2005년 CJ 미디어 대표이사, 2009년 CJ CGV 대표이사, 2010년 CJ제일제당으로 자리를 옮겨 제약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나연자 전공의

가정의학 우수논문상 수상

나연자 전공의가 최근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3년 대한가정의학과 추계 학술대회'에서 구연부분 우수논문상(책임교수 김현주, 가정의학과)을 수상했다.



사령

박소연(인문홍보학과 1)
고주희(초등교육학전공 2)
서예린(초등윤리교육전공 2)
한나연(초등과학교육전공 1)
부찬우(초등교육학전공 1)

정기자에 임명함
이상 11월 1일자

사람들

황용철(경영학과) 교수

한국전략마케팅학회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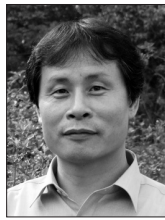
황용철(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조선대에서 개최된 '2013년도 추계 마케팅 관련 통합(한국전략마케팅학회, 한국마케팅학회, 한국마케팅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사)한국전략마케팅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다.



오홍식(과학교육과) 교수

한국조류학회 학회장 선출

오홍식(과학교육과) 교수가 최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조류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한국조류학회 제10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김남형 교수·우수민 연구원

항만학 학술발표우수상 수상

김남형(토목해양학과·위) 교수와 우수민 연구원(석사)이 최근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열린 '2013 한국항해항만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춘계 학술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운상 화학과 대학원생

우수포스터 발표상 수상

이운상 화학과 대학원생이 지난 8월 22일부터 3일간 일본 후쿠오카대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분석과학컨퍼런스'에서 우수포스터발표상을 수상했다. 발표논문(지도교수 강창희)은 '제주도 대기경계층 미세먼지(PM10, PM2.5)의 화학 조성'이다.



제33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9주년을 맞이하여 제33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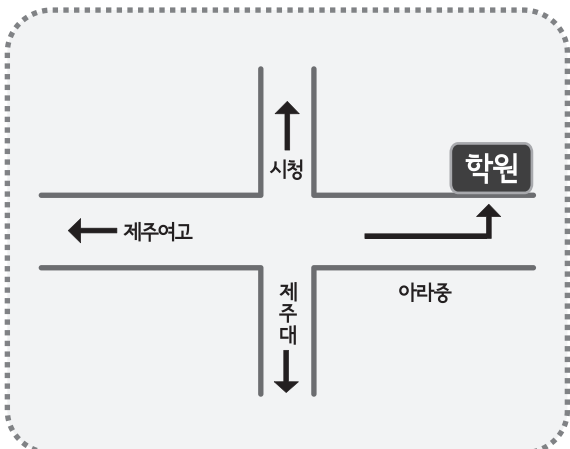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2.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nu.ac.kr로 제출해야 함
3. 접수마감일시 : 2013년 12월 9일(월) 18:00까지
4.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5.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
(☎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6. 발표 : 제주대신문 2014년 신년특집호
(2014년 1월 1일 발행 예정)

신문방송사 제주대신문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 혁신하는 명품대학! 국립제주대학교

2014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학위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비고
입학원서 접수	2013.10.14.(월) 10:00 ~10.17.(목) 17:00	2013.11.19.(화) 10:00 ~11.22.(금) 17:00	·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홈페이지 (http://www.uwayapply.com)
첨부제출 서류 (우편, 택배, 방문)	2013.10.14.(월) ~10.22.(화) 18:00	2013.11.19.(화) ~11.27.(수) 18:00	· 제출처 : 우)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토·일요일은 휴무 · 제출서류 미비시 불합격처리
실기고사 (음악학과)	2013.10.29.(화) 10:00~		· 장소 : 음악관
필기고사		2013.12.13.(금) 10:00~	· 장소 : 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고
면접고사	2013.10.29.(화) 10:00~ 2013.10.29.(화) 14:00~	2013.12.13.(금) 15:00~	· 장소 : 학과사무실 · 장소 : 음악관, 미술관
합격자 발표	2013.11.18.(월) 예정	2014. 1. 10.(금) 예정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개별통지 안함

※ 1.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은 일반전형으로만 모집합니다.

2. 특수대학원(교육·경영·행정·산업·사회교육대학원) 및 통역번역대학원 신입생 모집은 각 대학원별로 실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전 화 : 064-754-2045 홈페이지 : http://ibsi.jejunu.ac.kr



교수시론

재선충병으로 말라죽어 사라지는 소나무



김 동 순
식물환경자원전공 교수

“ 제주도에서도 어디서나 빨강게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어 천연경관이 최고 자산인 제주도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다 ”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는 궁극적으로 죽음으로부터 온다고 한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잠 시 자신이 소나무라고 생각해보자. 정말로 감정의 이입이 되었다면, 지금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르르 떨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에이즈는 인간의 탐욕이 낳은 21세기 재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에이즈의 공포에 떨고 있는가? 보통의 사람이라면 치사율이 100%라는 에이즈를 아무도 무시워하지 않는다. 치사율이 0.1%인 신종플루나, 치사율이 3~4%인 사스(SARS)에 오히려 더 공포를 느낀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자기(또는 사람)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에이즈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얼마든지 감염을 피할 수 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병원균의 매개체는 인간 자신이다.

유럽에서 1347년(14세기) 처음 창궐한 흑사병(페스트)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당시 유럽인구의 30%에 해당하는 2500만명이 희생되었다.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몰랐다. 한참 후에야 쥐벼룩이 흑사병의 원인이 되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Yersinia pestis)를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졌

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외부와 모든 접촉을 끊고, 문을 꼭꼭 걸어 잠가도 흑사병의 침입을 방지하지 못했다. 몸속에 페스트균을 보유한 벼룩을 태우고 쥐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약 1mm 길이의 실갈이 생긴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이 원인이 된다. 소나무에 침입한 선충은 급속도로 증식하여 나무의 물관을 막아버린다. 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당해년도 80%, 다음해 나머지 20%가 고사한다. 소나무재선충은 스스로 이동능력이 없다. 전파되려면 반드시 흑사병의 쥐-벼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딱정벌레목에 속한 솔수염하늘소라고 하는 곤충이 매개체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치사율이 100%라는 점은 에이즈와 같다. 하지만, 감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과 가공할 만한 빠른 전파능력은 흑사병의 속성에 더 가깝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솔수염하늘소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초기 박멸에 실패하면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왜 그것을 간과(看過)했을까? 솔수염하늘소가 나오지 못하도록 고사된 소나무의 벌목과 훈증처리, 내년에는 대대적인 항공방제 살충제가 기다리고 있

을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05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되었다. 일본에서 수입한 화물의 포장재로 쓰인 소나무 목재 속에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솔수염하늘소가 들어 있었다. 제주에서 첫 발생은 2004년 오동동에서 발견되었다. 육지에서 드려온 건축자재용 목재를 통하여 솔수염하늘소가 침입한 것이다.

이제 제주도에서도 어디서나 빨강게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들을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다. 천연경관이 최고의 자산인 제주도에 가슴이 아픈 일이다. 일본에서는 642백만 ha, 중국에서는 700백만 ha 면적의 소나무가 피해를 받았다.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소나무가 모두 사라졌다. 제주도 소나무 5만 그루가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어 고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내년 봄까지는 15만 그루가 고사될 것이라고도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가만히 눈을 감고 소나무가 사라진 제주의 산과 들을 생각해보자. 그 모습이 아름다운가? 아니면 공포스러운가? 가만히 눈을 감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미래의 나를 겹쳐서 보자. 행복한가? 공포스러운가?

독자기고

달콤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 사회를



안 준 환
언론홍보학과 1

‘삼당사락(三堂四落), 세 시간을 자면 성공하고 네 시간을 자면 실패한다’고 압박을 주고 있다. 잠이 많은 나는 다섯 시간을 자는 것도 서러운데 세 시간을 자야 성공한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다.

며칠 전 신문에서 ‘초등학교 6학년 김OO양의 방학스케줄’이란 기사를 읽었다. 오전 6시, 눈을 뜬과 동시에 윤OO 영어 강습 시작, 밤 12시에 는 술 대비 독서를 하며 잠자리에 드는 김양의 시간표는 가히 ‘살인적’이라 표현해야 옳을 듯 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절대 재우지 않는다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소름이 돋았다.

그 외에도 인터넷이나 TV를 잠깐만 둘러보아도 ‘잠’을 줄여야 성공한다고 떠들어 대는 광고와 기사들. 내 어린 시절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TV에서 나오는 로봇들을 보며 즐거워했는데, 어느새 사회는 초등학생에게도 잠을 줄여야 권하고 있다.

비단 초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중학생에겐 성공적인 고입을, 고등학생에게는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요구한다. 대학생에겐 성공적인 취업을, 직장인에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요구하

며 중년에게는 성공적인 노후대비와 자녀들을 위한 보험을 마련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그 뒤를 매 쉽게 쫓아오는 ‘잠을 줄여야 한다’는 말. 우리는 과연 언제쯤 잠을 잘 수 있을까?

시계바늘을 잠시 뒤로 돌려보면, 과거 서양이나 우리나라에 가혹한 형벌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니 뭐니 해도 ‘잠’을 못 자게 하는 형벌이 수많은 형벌 중 당연 으뜸이라 칭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국민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잠을 편하게 자고자 우리 인간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이유로 잠을 못자고 있는 상황이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주인공 파خم에게 결국 필요한건 그가 묻힐 6피트의 땅이었다.” 어느 유명 만화가의 말이다. 많은 것을 욕심내어 한 번에 취하려 한들, 우리는 결국 자그마한 땅 몇 평과 함께 간다. 나는 우리 사회가 이제 다시 ‘잠’에 들어갈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잠의 사전적 의미를 잠시 빌려오면 ‘눈이 감긴 채 의식 활동이 쉬는 상태’, ‘생물이 깨어있을때 손상된 부분을 재생하고자 이루는 행위’ 등이 있다. ‘잠’ 시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손상된 마음과 의식을 모두 쉬도록 하자.

달을 듯 닿지 않는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온 그대도, 받아쓰기 시험 100점을 위해 달려온 꼬마이도, A+ 학점을 위해 달리는 우리 대학생들도 잠시만 쉬어가자. 요즘 한창 핫이슈로 떠오르는 노래 제목이 ‘24시간이 모자라’ 인 걸 보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결국 몇 시간의 달콤한 수면시간이 아닐까.



현 수 지
언론홍보학과 1

컬으면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신세대’라는 명예로운 훈장을 부여한다. 하지만 나는 신세대 용어가 아니면 자신이 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사회가 슬프다.

처음 신조어는 문자를 길게 보낼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이 자음만 보내는 방식으로 단어를 줄여 쓰며 탄생했다. 그러나 지금 쓰이는 신조어는 자신이 신세대임을 자랑하기 위해, 혹은 자신이 신세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그들만의 소통의 방식으로써 사용된다.

나는 이러한 신조어가 정이 가지 않아 사용하는 사람을 마주하면 씁쓸하기만 하다. 신조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런 언어를 사용할 경우, 알아듣지 못하고 되묻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나는 종종 소외감을 느끼는 데, 이러한 문제에 ‘내가 신조어를 쓰는 것이 그 소외감을 없애는 방법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신조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신조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소통이란 일방적인 것이

○○(응음),ㅋㅋ(웃음소리),ㄴㄴ(아니, 노노), 이처럼 우리는 꼭 필요한 말조차 최대한으로 줄여서 쓴다. 하지만 이러한 줄임말, 그대로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 사회에서는 줄임말을 신세대 용어라 일컬으면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신세대’라는 명예로운 훈장을 부여한다. 하지만 나는 신세대 용어가 아니면 자신이 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사회가 슬프다.

아닌, 쌍방향으로 작용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신세대 용어의 사용은 곧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소통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이지만 신조어는 젊은 세대 내에서만 빠르게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그 결과 기성세대는 신조어를 이해하지 못해 신세대와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신세대 용어는 그들만의 은어처럼, 확산되지 못한 채 그들만의 단어로 사용될 뿐이다.

그렇다면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널리 퍼진 바른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세대는 기성세대와 소통할 때, 사용되는 신조어가 사용하는 경우에 그 언어가 적절한지 혹은 부적절한지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알맞은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신조어에 둘러 쌓여있다. 어린 아이들은 한글을 정확하게 배우기 전, 한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조어를 접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표준어인지 신조어인지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되면 우리의 한글은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신조어와 표준어의 경계가 모호해진 우리 사회에서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신조어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바른 언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자치기구 선거 점검

» 총대의원회 - 우선순위 선거운동본부

“총회·감사·선거 등 본연의 책무 철저히 이행할 터”

실질적 공약 통해 조직 활성화 기대

▶출발동기는. “올해 ‘길라잡이’ 총대의원회 감사국장을 맡아 대의원 활동을 시작했다. 감사활동을 통해 총대의원회는 모두를 위한 기준을 잡는 기구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이제는 감사국장을 넘어 의장으로서 총대의원회를 이끌고 싶어 후보로서 출마했다.” ▶슬로건으로 내건 ‘우선순위’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꿈과 목표가 있다. 꿈과 목표를 이루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들이 있다. 학과대표뿐만 아니라 일반 아라 학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겠다는 의미로 ‘우선순위’라는 이름을 정했다.” ▶입후보자가 생각하는 총대의원회의 역할. “총대의원회의 역할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총회, 감사, 선거다. 우선 총회는 학과대표들의 의견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대의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감사는 각 기구간의 견제를 통해 서로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선거는 잘못된 선거 문화를 개선시키는 것과 비용 절감 등에 신경쓰는 것이 총대의원회의 역할이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총대의원회는 결국 모든 것의 ‘기준점’을 잡아준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역대 총대의원회를 바라보며 느낀 점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총대의원회는 자그마한 조직이었다. 각 단과대학에 대의원회를 구성, 총대의원회라는 이름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과감사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확장시켜 나갔다. 역대 의장들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반아라 학우들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 역시 그들의 뒤를 이어 총대의원회를 이끌고 싶다.” ▶‘우선순위’의 주요 공약은. “우선순위는 학과대표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허황된 공약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과대표들을 위한, 더 나아가 일반아라 학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과 정책을 준비했

다. 먼저 각 단과대학 대의원실에 복합기를 설치해 학과대표들의 인쇄비 부담과 밀린 과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Volunteer & I make a Plan 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과대표들의 참여를 통해 기획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총대의원회가 후원하고 학과대표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리더십 배양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외에도 기존 총대의원회가 진행했던 만사내집, 할인 혜택 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감사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감사평가를 총대의원회만의 의견만 내세워 몰아붙인다면 대의원회는 일부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로 남게 된다. 총대의원회는 일반아라 학우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다. 그러므로 중앙운영위나 상임위원회의 협력과 함께 감사평가를 진행하도록 할 생각이다.” ▶대의원총회 진행시, 학과대표들의 인준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의견이 있다. “민감한 사항이지만 이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닌 학과대표 개개인의 성향

차이라고 생각한다. 학과대표는 자신의 학과와 학년 모두의 의견을 대표로 말하고자 선출된 자리이다. 그런 학과대표를 위해 대의원회는 회의에서 발언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제공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의견을 말하지 않는 학과대표는 본인의 책임감을 넘어 학과 전체의 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의원회에서보다 보다 폭 넓은 제도적 장치와 함께 학과대표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총대의원회를 잘 모르는 학우들이 많다. 총대의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방안이 있다면 어떤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SNS(페이스북, 트위터)나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홍보 효과가 높을 것이다. 또 온라인상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현수막이나 포스터 부착을 통해 총대의원회의 행사를 알릴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총대의원회를 홍보해 나가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과대표



제30대 총대의원회 선거에 단선으로 출마한 ‘우선순위’ 팀. 정후보자 고명환(수학과 3, 왼쪽)씨와 부후보자 고현우(수산생명의학전공 3)씨.

들에게 총대의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대의원회가 학과대표들에게 유익한 행사를 진행해 나간다면 그들을 통한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모든 학생자치기구의 기준이 되며, 어느 자리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지닌 총대의원회를 만들고 싶다. 결국 총대의원회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는 일반아라 학우들을 위함이기때 그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총대의원회가 되고 싶다.”

강수빈 기자

동문칼럼

아라벌과의 인연을 되새기다

교사의 길을 천적으로 알고 30년 동안 중등수학을 가르치다 올해 9월 영광스럽게 초임 교감으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제주에서 초·중·고를 보내고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여 제주교사가 되고, 교감으로 승진하여 모교와 인연을 이어가니 참으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문 영 복
수학교육과 78학번
제주대 사대부고 교감

대학을 졸업한 후 교직 생활의 부침이 있을 때마다 나를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교수님, 동문님들이 있어 항상 행복합니다. 그리고 교직에 있으면서 교사의 전문성과 수학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석사와 박사학위도 제주대학교에서 취득하였습니다. 저에게 아라벌은 청년기의 꿈과 성년, 장년기의 힘을 함께 심어주고 끌어준 멘토라 할 수 있습니다. 저가 다니던 시절의 국립사범대는 졸업하면 교사가 보장되었기에 졸업 후 직장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학업을 소홀히 할까 염려가 되어 수학교육과 교수님들의 학점은 유급을 시킬 정도로 엄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전공책을 들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고 심지어 성형까지 하는 취업 대란을 겪는 것을 보면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세대는 풍족하지 않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4년 근무하고 고등학교에서 지난 8월까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주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과학고까지 다양한 학생들과 만나면서 학생 수준에 맞는 교수법으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였었습니다. 물론 그 바탕은 대학에서의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도가 있었고, 동료 선생님들과의 연구와 협력이 있었기에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무난히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끌어주는 역할을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했다는 깨달음으로 다가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내가 그 순간들을 충실하게 잘했는가를 묻는다면 잠시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은 유독 길었습니다. 너무 덥고 가뭄이 지속되어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이제 단풍 소식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공기가 겨울로 접어드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제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낸 시간들도 순차적으로 흘러가서 이제는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교감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감이 되고 가장 애색한 것은 교감실이라는 공간에서 결재하러 오시는 선생님들과의 만남입니다. 두 달이 지나가니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내가 있을 곳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실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은 정년까지 수업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감으로 일하는 지금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이 순간까지 저를 이끌어온 바탕에 제주대학교 아라벌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주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만한 자녀가 있어 후배이자 자식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불러봅니다. 긴 세월이 지나면 대학시절에 행한 일들이 내 삶에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학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젊음의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는 분야에 마음껏 도전하는 시간들로 대학생활을 채우길 바랍니다.

주요 공약

- ▶학과대표 경력사항 기재
- ▶각 단과대학 대의원실 복합기 설치
- ▶Volunteer & I make a Plan
-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 ▶휴대폰 급속충전기 설치
- ▶시험기간 세면도구 지급
- ▶학과대표 할인 혜택
- ▶단대 감사 및 학과 감사 기준 확립
- ▶공정한 선거 통해 선거 비용 감소

“학생들이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총학생회”

등록금 환원률 증대시켜 학생 혜택 늘릴 것



제46대 총학생회 선거에 나선 ‘하영Dream’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원일권(영어영문학과 4, 왼쪽)씨와 부입후보자 안진호(경제학과 4)씨.

▶출마 동기.
“정후보자는 영어영문학과 회장과 인문 대학 회장을 역임했다. 부후보자는 경제학과 회장, 경상대학 회장을 맡았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복지와 권익 신장에 힘썼다. 두 후보자 모두 회장을 지내면서 학과 및 단과대학 운영을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다. 더 나아가 제주대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총학생회 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돼 출마를 결정했다.”
▶ ‘하영Dream’ 슬로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슬로건의 부제는 ‘일만 개의 꿈, 그 꿈을 향한 우리들의 Dream’이다. 학생들은 대학교에 와서도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다.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사고를 하고 있는데 교육방식은 획일적이다. 우리는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총학생회가 되고자 이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번 총학생회에 아쉬운 점.
“올해 아라제전을 진행하면서 한 학생이 다친 적이 있었다. 이때 애플런스가 늦게 오는 등 사후 대처가 아쉬웠다. 행사가 진행될 때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 부분에서 미흡했 것 같다. 우리는 행사를 진행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총학생회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는 무엇이 있다고 보나.
“총학생회의 권위를 낮추는 것이다. 총 학생회실이 3층에 있는데 총학생회실에만 상주하는 것은 잘못됐다. 학생들이 행사 등을 제외하면 총학생회를 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학생회관 1층으로 먼저 내려와 학생들에게 총학생회가 하는 일을 알릴 계획이다. 또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해결하고자 노력해,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총학생회를 만들겠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먼저 드림센터가 있다. 학생회관 내 대형부스를 설치해 총학생회 산하 복지위원회를 상주시킬 생각이다. 이곳에서 멘토링, 상시책장터, 주간지 비치 등을 할 생각이다. 두 번째는 캠핑 페스티벌이다. 현재까지 대학의 3주제인 학생, 교수, 직원이 모여 진행되는 축제가 없었다. 대학의 주체가 모여 행사를 연다면 교직원들도 총학생회와 학생들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

정-원일권
부-안진호

“

학생회관 내 드림센터 설치해 멘토링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수·학생·직원이 함께하는 캠핑 페스티벌 행사 개최

”

기 힘든 임팩트 있는 공약을 내거는 것은 자질 문제가 있다.

또한 이는 일반 아라를 위한 총학생회가 아닌 후보자를 위한 총학생회가 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후보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들은 학과, 단과대학 회장을 하면서 내건 공약들을 모두 지켰다. 총학생회가 돼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대동제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동제 문화는 주점과 연예인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어 아쉽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축제 전담팀을 만들겠다. 축제전담팀은 유니브엑스포를 모티브로 생각했다. 유니브엑스포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획단을 조직해 진행했다. 당선이 된다면 임기 시작과 함께 축제전담팀을 꾸려 5-6개월 간 준비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참신한 기획을 만들고자 한다.

▶평의회 의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평의회에서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결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은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

▶평의회 의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평의회에서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결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은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

▶평의회 의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평의회에서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결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은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

▶평의회 의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평의회에서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결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은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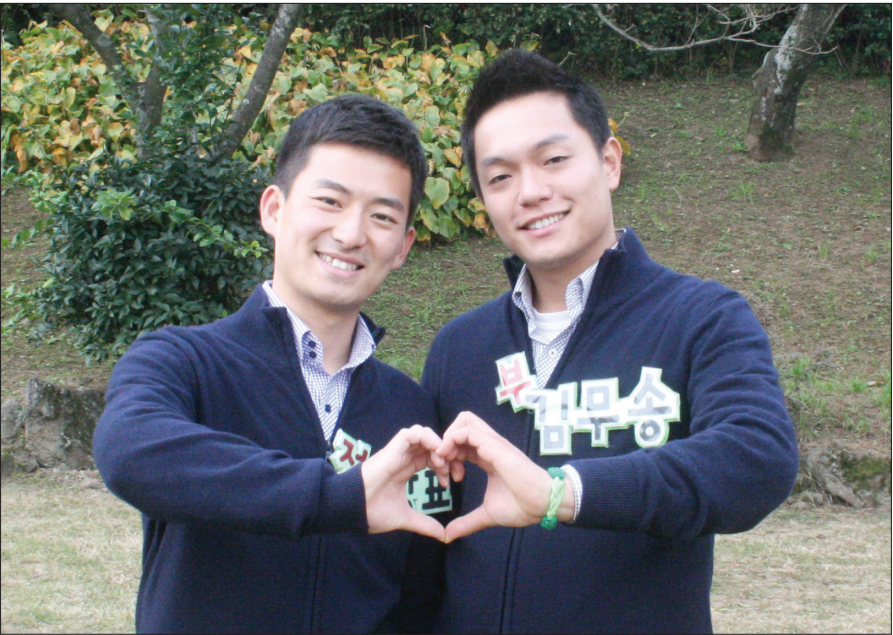
김동현 기자

주요 공약

- ▷ Dream Center 설치
- ▷ Dream Mento제 실시
- ▷ Book sharing
- ▷ 대학생 주간지 비치
- ▷ 등록금 환원률 증가
-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 가상회비 납부문제 해결
- ▷ 대학발전협의회 신설
- ▷ 평의회 학생 의결권 획득
- ▷ I see Dream 총학생회 평가제
- ▷ 투명한 학생회
- ▷ 아라대동제 축제 준비 전담팀 구성
- ▷ 아라대동제 학군단 퍼레이드
- ▷ 아라 캠핑 페스티벌
- ▷ 그린캠퍼스 협의회 가입
- ▷ 제주유나이티드 연계 학점 이수 수업 신설
- ▷ 4·3 수업 P/F 평가
- ▷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활성화
- ▷ 계절학기 수요조사 활성화
- ▷ 스티디룸 확보
- ▷ 코이카 해외봉사단 & 아라 해외봉사단 인원 증대
- ▷ Dream Road 조성
- ▷ 학생회관, 제2도서관에 동전&지폐 교환기 설치
- ▷ 단과대학 전산실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 ▷ 무인 복사카드 발급기
- ▷ 대운동장 계단 설치
- ▷ 제2운동장 풋살장 ‘Dream Field’ 학생 이용 보장
- ▷ 학내 야광 반사경 설치
- ▷ 라면자판기 추가 설치
- ▷ 학생회관 및 제2도서관에 도서 반납기 설치
- ▷ 캠퍼스 전역에 쓰레기통 추가 비치
- ▷ 경성대·인문대 오르막길에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 ▷ 순환버스 노선 변경
- ▷ 스마트폰 충전기 이관, 한라카페테리아에 설치
- ▷ 디지털 도서관 신축과 체육관 리모델링
- ▷ 기숙사 식사비용 비율제
- ▷ 기숙사비 카드납부 범위 확대
- ▷ 기숙사 출입시간 일괄 2시 통일
- ▷ ‘다모아’ 후문정보 게시판 신설
- ▷ 외국인인을 위한 서포터제
- ▷ 아라체전 외국인 참여
- ▷ 장애학우 이동로 보완 및 설치
- ▷ 노트북, 패드 대여 시스템
- ▷ 학생회관 식당 메뉴 다양화
- ▷ 일반 아라 Dream 지원금
- ▷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
- ▷ 물품 대여 사업
- ▷ 아라를, 한라를 시험기간 연장 개방
- ▷ 위험지역 가로등 추가설치
- ▷ Dream 스티커
- ▷ 제휴 업체 알림판
- ▷ 단과대학 주요사항 중앙운영위원회 공동 논의
- ▷ 지역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
- ▷ 신제주권-제주대 직행버스 노선 개설
- ▷ 5·16버스 막차 시간 연장

“본래 취지인 참된 의미의 ‘진짜’ 총학생회”

평의회 의결권 등 학생 목소리 담는 민주적 제도 도입



제46대 총학생회 선거에 나선 ‘진짜’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고광표(경영학과 4, 왼쪽)씨와 부입후보자 김무송(법학과 3)씨.

▶출마 동기.
“지난 5년간 학생과 학생회 두 가지 입장에서 총학생회를 바라봤다. 하지만 5년 동안 학교에 건물 몇 개만 들어섰지 학생들의 삶이 윤택해지지 못했다. 아직도 학생들은 등록금을 할 때 불편한 만원 버스를 타야하고 등록금 사용계획에 의견을 담을 수 없다. 교수, 직원, 학생은 다같이 학교의 주인이지만 제대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는 장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실행하려 한다. 기존 총학생회는 문턱을 낮추고 소통, 공감하겠다고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총학생회 자체적으로 학생회관에 부스를 설치하고 취업, 장학금, 학사 등 혜택에 관한 정보 전달을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 생각한다.”

▶ ‘진짜’ 슬로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총학생회가 학우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다. 불신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들에게 본래 취지대로 참된 의미의 진짜 학생회가 되기 위해서 단순하지만 ‘진짜’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번 총학생회에 아쉬운 점.
“정책을 70% 이상 이행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2학기 들어 사업 추진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다. 정책은 학생들이 정말 원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좋은일만 총학생회가 실현하지 못했던 공약 중 좋은 부분을 인수인계 받아 실천하려고 한다.

▶총학생회의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는 무엇이 있다고 보나.

“앞서 설명했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후생복지기금은 등록금의 2%이지만 집행 결과를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로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학교 사업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이 어떻게 계획되고 집행되는지 알 수 없다. 학교에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는 민주적 절차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진짜’ 선거운동본부의 가장 큰 목표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이번 좋은일만 총학생회와 총장님과의 대화에서 평의회 의결권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의

결권은 정책 성공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학생들이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 의결권과 총장 선출 학생인원 확대 등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이뤄야 한다. 또 학생회만의 얘기가 아닌 모든 학우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약 중 제주대 동문들과 함께하는 디어[dir]아라장학금이 있다. 이는 동문 15명이 하루에 천원씩 적립해 4년 동안 한 학생의 등록금을 채워주는 것이다. 동문들과 협약을 맺어 생활이 어려운 학우들을 찾아 장학금을 주려 한다.

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컨설팅이 필요하다. 학생 각자가 어떤 것을 하고 싶고, 적성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즉 막연하게 학점이나 토익 점수를 높이려 노력하는데, REAL PLAN은 취업전략본부와 연계해 1학년부 4학년까지 학년별로 일정 기간 동안 컨설팅을 통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공정회는 학교의 각 처부의 전반적 사업 계획이나 집행 내역에 대해 일반 학우나 학부 등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 학교가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논하는 공정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자원센터에 전문 직원 3명 이상이 상주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해당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전문직원 채용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밖에도 기숙사 입주 장학금, 버스노선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등록금 인하 공약을 내건 이유는.
“학우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을 총학생회들에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등록금 관련 공약을 내걸어야 학우들의 관심도 끌고, 학교에도 학우들의 의견을 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건 것이다.”

▶평의회 의결권 참여 권한 범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결권은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참여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미약하더라도 학생들과 학교 측이 아예 소통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정-고광표
부-김무송

“

제주대 동문과 함께하는 디어[dir]아라장학금 신설 취업전략본부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컨설팅 도입

”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4년간 내는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의결권은 한 표일지라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이뤄야 할 것이다.”

▶예전 총학생회 출마자들보다 공약들이 지킬 가능성은 높지만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2006년부터 출마한 총학생회의 공약을 살펴봤는데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많았다. 총학생회는 약속을 지키는 곳이지 말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려는 그릇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총학생회가 정말 지킬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공약 위주로 진행하고 싶었다.”

▶대동제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일 동안만큼은 많은 학생들이 대동제에 참여하고 제주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참여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연예인 섭외와 무대 설치 등 축제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야외공연장 신축을 통해 향후 축제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 당장 효과를 보긴 어렵지만 앞으로 무대 설치 등의 축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다.

공연에 있어서 학우들의 요구를 더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예인 가수로 인기 있는 축제를 만드느냐 혹은 기획을 통해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드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가 발족된다면 축제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이다. 학생회 인원 외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운영하는 것이 큰 목표이다. 연예인 공연만이 아닌 학생다운 축제 기획에 노력이 더해진다면 대동제가 더 큰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진짜’ 총학생회 선거본부는 표를 위한 공약보다는 학생들이 피부로 와닿고, 캠퍼스 라이프의 질을 높이는 부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년간 총학생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준비를 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학우들을 위한, 삶의 뿌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강경태 기자

주요 공약

- ▷ 총학예산안 공개 확대
- ▷ 일반아라 콜센터 운영
- ▷ 공약이행 진행과정 홈페이지 게시
- ▷ 평의회 참여권 확대 및 의결권 획득
- ▷ 총장임용 선출권 확대
- ▷ 공정회 추진
- ▷ 장학금 수혜자 등록금 분할납부
- ▷ 특색있는 장학금(디어[dir]아라장학금 프로젝트)
- ▷ 등록금 인하 추진
- ▷ 취업부스 운영
- ▷ REAL PLAN(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
- ▷ 취업스타디 확대
- ▷ 모의토익 응시료 전액 지원
- ▷ 스티디룸 확충
- ▷ 체육관 헬스장 및 샤워실 이용
- ▷ 교양동 교인수용할 설치
- ▷ 종합 분실물 및 물품보관 센터
- ▷ 헌책방 운영

- ▷ 서귀포버스 아간 연장 운영
- ▷ 계절학기 순환버스 운영
- ▷ 등/하교 시간 버스 늘리기
- ▷ 신제주-제주대 연복로 노선 신설 추진
- ▷ 취업자 대상 이러닝 개설 확대
- ▷ 수강신청 시스템 개선(모의수강신청 시스템)
- ▷ 필수교양 이러닝으로 추가 개설
- ▷ 강의평가 시스템 및 결과내용 개선
- ▷ 강의계획서 개선 및 의무화
- ▷ 학생회관 식당(백두관) 가격 2년간 동결
- ▷ 생활조원원생 발급 및 할인혜택 추진
- ▷ 시험기간 매점(한라를, 아라를 등) 아간 운영 추진
- ▷ 경대 급경사 계단 설치
- ▷ 폭풍의언덕 미끄럼방지 설치
- ▷ 산천단 다리정비
- ▷ 위험지역 가로등 소등시간 연장
- ▷ (중앙도서관 계단/동물병원 근처)

- ▷ 정문 비가림막 리모델링 및 교내 추가설치
- ▷ 무빙워크
- ▷ 기숙사 입주 장학금
- ▷ 원룸 및 자취방 정보 개선
- ▷ 중앙도서관 및 제2도서관 사물함 추가배치
- ▷ 휴대단 급속충전기 설치
- ▷ 중앙도서관 책받침대 설치
- ▷ 제2도서관 휴게실 건축사업 추진 촉구
- ▷ 중앙도서관 휴게실매점 설치
- ▷ 야외음악당 재건축
- ▷ 월드컵축제
- ▷ 유학생 학생회실 이전(학생회관 지하→학생회관 3층)
- ▷ 유학생 장학금 선정 기준 완화 (2.7+Topik 4급→2.4+Topik 4급)
- ▷ 장애학우 총학회의 참정권 부여
- ▷ 장애인지원센터 전문직원 채용
- ▷ 4·3의 날
- ▷ 4·3 대통령 방문 요구